三和寺의 塔像

秦 弘 燮

一九六七年 十二月 下旬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査團의 太白山地區 調査班은 第七次의 最終調査로서 太白山頂을 目標로 淨岩寺、洛東江의 發源인 淸源寺와 三陟、蔚珍 等地를 調査하였는데 그 一環으로 三和寺에 到着한 것은 그 해가 저무는 二十七日이었다。이 調査에는 崔淳雨國立博物館長(當時 國立博物館 學藝硏究室長)을 비롯하여 檀國大學校博物館長 鄭永鎬敎授、梨花女大博物館硏究員 金和英 그리고 筆者가 參加하였다。

三和寺는 江原道 三陟郡 北三面 三和里에 位置하고 太白의 峻嶺이 縱走하여 東海岸으로 急傾斜를 이루는 山麓에 자리잡고 있다。山號를 頭陁山(一三五一m)이라고 伽藍은 그 北麓에 經營되었다。東國輿地勝覽 卷四十四 三陟都護府條에 의하면 頭陁山에는 周 八千六百七尺、高 五尺의 石城이 있고 山腰에는 石井 五十이 있으며 神祠가 있어 邑人이 春秋로 제사하고 가물면 이곳에서 祈雨한다고 한다。特히 高麗 때 李承休와의 關聯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高麗忠烈王時李承休以殿中侍御言事忤旨見罷卜居山下自號動安居士年七十餘被簉王命出山到京

이 山下에 位置한 三和寺에 관하여는 역시 東國輿地勝覽 佛宇 三和寺條에 다음과 같이 있다。

在頭陁山○釋息影菴記山在郡西三十里雄跨遐控臨大海氣勢與臺崛綿亘山東西巨壑邃如脩岡迤如大溪瀏瀏然中注入于海有支山起伏而東未五十步又屈折而南峭竪成一峯峯下地可四十畝在溪北隆然而夷新羅末有三神人各率僚伍甚衆集于玆相與謀議若古諸侯會盟之禮者久之乃去土人因名其峯爲三公頃有閣崛山品日祖師遂往卽其所建佛祠亦以三公揭榜太祖龍飛爰勅玆寺籍名錄案俾傳後嗣異矣夫神人占位示其兆祖師構基識其祥及神聖王會和三土其効應著明是更寺目三和寺

또 江原道誌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新羅 善德女王時에 慈藏律師에 의해 創建하고 宣祖王時 武陵 上流에 移建하고 英祖 戊辰年에 舊址에 還建하고 三和寺라 하였다。純祖 庚辰年에 失火되어 甲申年에 重建하였으며 乙丑年에 또 火失되어 重建하였고 高宗 丙午年에 火失되어 翌年에 重建되었다。此寺는 平昌 月精寺의 末寺로서 大聖庵의 管轄 屬庵으로 하고 있다。

이 두 記錄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가 있다。寺刹의 創建說話에는 의례히 神異가 따르게 마련이므로 크게 介意치 않는다 하드라도 東國輿地勝覽에는 그 創建이 「新羅末」인듯이 記錄되고 江原道誌에는 「善德女王時에 慈藏律師에 의해 創建」되었다고 하였으니 江原道誌의 記錄은 더우기 믿기 어렵고 現存하는 遺物로 보아 오히려 輿地勝覽의 記錄이 事實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한편 世宗實錄 卷一一四 世宗 二十八年 十二月 乙亥條에는

且三和寺所藏佛經爲其人所書幷考以啓初前縣監金啓因孝寧大君啓三陟故老相傳云東山伊陵及穆祖父母陵而三和寺所藏金銀字經是 穆祖手寫經也

라 있으나 果然 그 事實의 與否는 알 수 없다。

三和寺에는 現在 三層石塔 一基와 破損된 鐵佛이 傳하고 있어 注目될 뿐 寺觀은 퇴락이 甚하여 寺運이 기울고 있음이 역력하다。

石塔은(圖1) 法堂 後庭에 位置하였고 各部에 損傷을 입고 있는데 基

壇部와 相輪部가 特히 甚하다。地臺石은 南北에 長大石과 東西에는 그 사이에 끼도록 된 四枚石으로 구성하고 下臺石과 中石을 한 돌로 깎아 五枚石으로 下基壇을 구성하였다。下基壇에는 四隅柱와 各面에 一柱式의 撐柱가 있다。甲石은 平薄한 二枚石으로 되었고 上面 中央에 角形과 四分圓의 괴임이 있으나 損傷이 많다。上基壇 面石은 各面 一石으로 구성하였고 隅柱와 撐柱 一柱가 표시되었다。大基壇 甲石은 一枚 板石인데 上面에 傾斜가 있고 中央에 角形과 四分圓의 괴임이 刻出되었다。그 위에는 上面에 四分圓의 괴임이 있고 下面은 內彎된 曲線으로 깎은 別石이 끼워 있어 塔身을 받치고 있다。塔身은 屋身과 屋蓋는 各 一石이다。初層塔身은 거이 立方體에 가깝고 四隅柱가 표시되었으나 損傷이 있고 二層과 三層塔身은 急激히 減縮되었으며 三層塔身은 特히 損傷이 甚하고 二層塔身은 二片으로 갈라졌다。屋蓋石은 받침이 各層 四段이고 大面에 角形의 塔身받침이 있되 一層 屋蓋石에는 二段이고 二層과 三層 屋蓋石에는 一段이다。相輪部는 擦柱가 남아 있고 現存하는 相輪은 露盤、覆鉢、寶輪이 있으나 無秩序하게 꽂혀있으며 따로 鐵環 五個가 있음은 寶輪과 寶輪 사이에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擦柱 頂上에는 寶珠를 鑄出한 別途의 鐵柱가 꽂혀 있다。이 石塔은 現高 四·七m이며 비록 곳곳에 損傷이 있기는 하나 東海岸地方에서는 보기 드문 秀作이라고 할 수 있다。初層塔身 밑에는 別石의 받침을 끼워 時代的인 特色을 보였고 擦柱와 相輪의 一部가 남아 있음은 多幸한 일이다。이 石塔의 建立年代는 高麗時代로 推定되며 新羅以來의 典型株式을 따르는 美塔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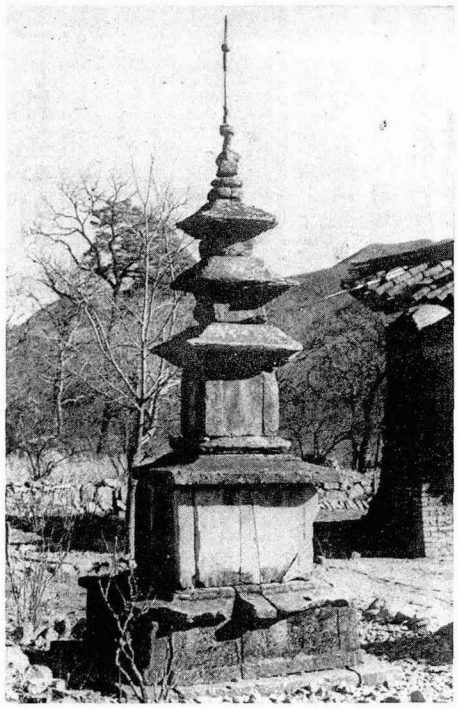

圖 1. 三和寺 三層石塔

鐵佛은(圖 2) 下半身을 完全히 喪失하였고 두 손도 없으나 上體 特히 顔面의 彫刻은 매우 우수하다。이 鐵佛의 現在 높이 一·二m이고 頭高 四〇㎝、肩幅 六八㎝에 두께 〇·五 내지 一㎝이다。머리는 螺髮이고 肉髻가 우뚝하나 육곽이 분명하지 않다。相好는 圓滿相인데 中央에 우뚝한 코가 있고 콧날에서 연속된 兩眉가 半圓을 그렸으며 이마에는 작은 白毫孔이 있다。두 눈은 半開하였고 눈고리가 옆으로 길게 延長되었다。두 귀는 긴 편인데 귓밥이 모두 없어졌다。입술은 두껍고 특히 윗입술이 부어오르듯 두드러져서 高麗時代 鐵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特色있는 형식이 되었다。목에는 三道가 뚜렷하고 法衣는 通肩인데 隆起된것 같이 보이는 衣紋으로 해서 雄健해 보이나 形式的인 手法이 엿보인다。衣紋은 어깨에서 팔로 내려오면서 약간 變化를 보였고 팔에 걸쳐서 늘어진 옷자락은 비교적 寫實的이다。앞 가슴은 露出되어 가슴 밑에 結帶가 크게 표시되었고 끝이 左右로 길게 늘어졌다。左手는 完全히 破損되어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고 右手는 水平으로 들었음이 분명하나 손목 위치에서 부러져서 없어졌다。이 佛像의 現存部分을 보면 목과 結帶 위에 橫線이 있고 가슴 앞에 縱線이 있음을 보면 여러 개의 틀에 의해 鑄造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 佛像이 坐像이었는지 立像이었는지의 問題는 분명히 밝힐 수 없으나 現存 最下端部 右側이 앞으로 꺾이면서 延長되어 있는 점과 鐵佛의 一般的인 姿勢로 보아 坐像으로 봄이 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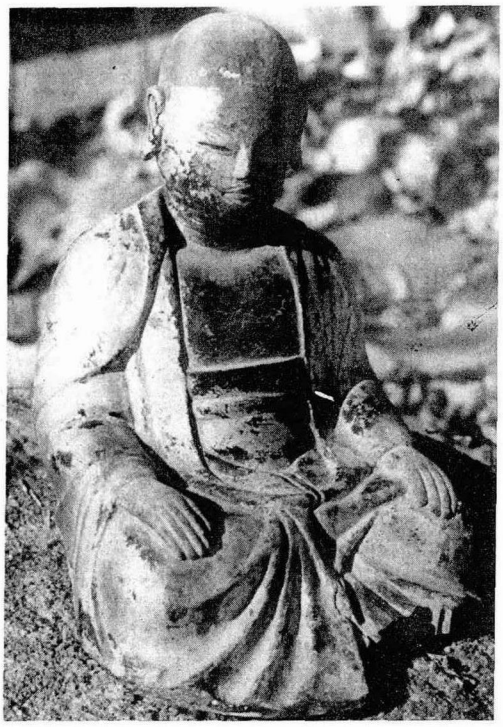

圖 3. 三和寺木造地藏菩薩像

圖 2. 三和寺鐵造如來像

할듯 하며 尊名에 관하여는 그것을 밝힐 아무 根據도 없다。 끝으로 이 鐵佛의 造成年代는 그 樣式的 特徵 특히 顔面處理에서 高麗佛像의 特徵이 如實히 나타나고 있다。

三和寺에는 또 하나의 木造佛像이 剃藏되어 있다。 剃髮의 地藏菩薩坐像이다(圖三)。 相好는 球形에 가깝도록 둥굴고 작은 耳目口鼻가 造形上 均衡을 잃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있고 通肩한 法衣는 매우 두껍다。 法衣의 一端은 左肩에서 뒤로 걸쳐 있고 오른 팔에서도 뒤로 한 가닥이 돌아가 있으나 不自然스럽다。 두꺼운 法衣로 해서 肢體의 표현이 뚜렷하지 않고 다만 팔과 무릎의 윤곽을 알 수 있을 뿐이나 몸이 相好와 한가지 肥滿型임이 분명하다。 衣紋의 처리 또한 形式的이고 迫力이 없다。 가슴 밑에 裙衣의 一端이 나타나 있음도 寫實的이 아니다。 두 손은 양쪽 무릎 위에얹고 있으나 손가락의 표현은 둔하다。 衣端은 무릎 앞에서 半月形을 그리는듯 하나 左半部에 손상을 입었고 우묵하게 판 四角에 가까운 받침을 따로 만들어 安置하였다。 원래는 全面에 彩色을 하였던듯 하여 그 흔적이 남아있고 머리에는 아직도 黑色이 남아있다。 底面에는 佛身 밑에 一〇×九㎝의 三角錐形의 구멍을 一一㎝ 깊이로 파고 腹藏을 넣은 다음 木板으로 막았다。

腹藏의 內容은 絹布와 香木이며 따로 창호지에 쓴 發願文이 있다。 發願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佛像造成發願文

造成尊像歸衣禮　瞻仰觀音大聖者　天眼觀我誠信禮
因此勝緣蒙佛記　速垂法雨滌塵垢　即發無上菩提記
入山修道離魔障　一生不遇橫災難　處々相逢明師友
不入邪道行正路　頓明文殊多種智　廣修普賢諸萬行
修回行願同地藏　恐難自力成此願　天衣佛石雖磨盡

證果度生亦佛陀 伏請諸聖蒙加彼 我願深々不可窮

如是所願弘誓願
惟願諸佛作證明 因玆奉祝

主上三殿下萬歲々々聖壽萬歲金枝鬱々玉葉垂々
干戈息靜於萬歲 國界恒安於不亂
平生發願佛像獨辦大施主邊氏禮还單身
子今立齋主木現增福壽
韓末叱同齋主 當生淨刹之願
願共含靈登彼岸世々常行菩薩道摩訶般若波羅

「密 緣化秩 訂歸 道性比丘
持殿 楚英比丘
畵 員 麗贊比丘
惠察比丘
道寬比丘
性賢比丘
供養主 楚和比丘
竺和比丘
來往僧 淨晦比丘
克兼比丘
別 座 道淑比丘
大功治大化主 太性比丘
引 勸 道眞比丘

雍正四年丙午四月日江原道三陟四面太白山地藏庵造像畢努
安于此庵後記也

여기에 있는 雍正四年은 英祖 二年 西紀 一七二六年이다。이 木佛은 現高 약 二〇cm의 小像이나 造成年代가 분명한 朝鮮朝의 佛像이다。이 佛像 調査時에는 절에서 대수롭지 않게 放置하고 있었으나 마땅히 保護가 있어야 할 佛像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장)